

그림자가 된 상철이

장광균 (2013년 제9회 5·18문학상 수상작)

“이상 오늘수업은 여기까지”

“차렷 경례!”

선생님이 교실 문을 나서자 아이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가 이길 것 같나?”

“당연히 왕배지! 상철 이는 왕배에게 게임이 안 돼!”

석주의 주장에 대해 우영이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 반 아이들 중 이번 싸움에서 나에 승리를 확신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왕배가 날 노려봤다. 콧방귀를 끼더니 교실 문을 열고 먼저 밖으로 나갔다.

왕배를 따르던 석주 우영이 한솔이 지욱이 영석이 도 뒤 따라 나갔다.

아이들도 우르르 그들을 뒤따라 옥상으로 갔다. 어느새 교실에는 나 혼자 남아 있었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할까? 그러면 나는 다시 우리 패밀리들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왕배는 우리 할머니 욕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할머니만 욕하지 않았으면 내가 먼저 왕배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킬 수도 없었다. 아이들은 이미 옥상에 모여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만일 여기서 도망친다면 난 창피해서 학교를 못 다닐 것이다.

일어나 교실 문을 열었다. 옥상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야속하게도 선생님은 이 사실을 몰랐다. 선생님이 내 표정을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본다면

“지금 큰 싸움이 날거예요. 애들이 지금 옥상에 모여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게 말을 걸어주는 선생님은 지금 아무도 안계셨다.

옥상에는 아이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다. 그 가운데서 왕배가 몸을 풀고 있었다.

왕배는 우리학교 짱이다. 힘도 제일 세다. 나보다 키도 크다.

“겁나냐! 빨리 와라!”

아이들이 자리를 비켜줬다. 나는 원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줄게!”

왕배가 비웃듯 내게 말했다. 하지만 난 잘못된 게 없었다. 우리 할머니는 돌팔이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왕배 부하로 살았어도 할머니까지 왕배 부하는 아니었다.

“우리 할머니는 돌팔이가 아니야!”

“바보야 그럼 경찰이 왜 너희 할머니를 잡아 갔는데?”

“그건…….그…….건…….”

할머니가 오늘 경찰서로 끌려갔다.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링거주사를 놓아주는 게 문제가 됐다. 할머니가 시골에서 사실 때부터 늘 해오던 일 이었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에게 ‘돌팔이’ 라고 놀리는 건 절대로 참을 수 없었다.

“너희 할머니는 간호사도 아니잖아!, 치료는 병원에서 해줘야지! 너희 할머니가 뭘데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사를 놓는 건데!”

“너희 할아버지 아프잖아! 정신이 이상하잖…….”

‘퍽!’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배의 주먹이 날아왔다. 내 눈에서 불이 번쩍 했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왕배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내게는 야유를 보내줬다.

아이들은 게임 속 주인공을 조정하듯 왕배의 이름을 불러댔다.

더 이상은 왕배의 입에서 할머니 욕을 하게 내버려 둘 순 없었다.

나는 터벅터벅 걷고 있던 왕배의 왼쪽 정강이를 힘껏 발로 찼다.

“아!”

왕배는 비명과 함께 한쪽 발을 들어 올렸다. 나는 다시 한 번 오른발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왕배는 달려드는 내 먹살을 잡아챘다. 그리고 번쩍 들어 올렸다.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 아이들은 또다시 나를 비웃기 시작했다.

공중에 들려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몸을 흔들려 봤지만 소용없었다.

발버둥을 칠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커져만 갔다. 왕배는 씩씩 거미며 날 붙들고 있었다. 주먹으로 왕배의 팔을 쳤다. 그럴수록 왕배 팔에는 힘만 더 들어갔다.

목이 점점 조여 왔다. 낱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비웃음은 더 커져갈 것이다. 왕배의 팔을 풀어보려 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숨이 막혀왔다. 나는 목을 위로 뻗어 보았다. 하지만 목은 더 조여 왔다. 하늘이 보였다. 눈이 부셨다. 봄 햇살의 따스한 햇볕이 나와 왕배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후 하늘이 노랗게 변했다. 고개를 숙였다. 햇살 뒤로 왕배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마저 날 비웃고 있었다. 더 이상 숨이 쉬어지질 않았다. 순간 온 세상이 점점 환하게 변했다. 너무나 눈이 부셔서 눈이 저절로 감겼다. 순간 내 눈앞에서 모두가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을 내밀었다. 내손이 보이지 않았다. 앞발을 내밀어 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다시 손을 내밀어 내 앞을 휘저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허공에 떠 있는 듯 한 기분이었다.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일단 이곳을 빠져 나가야만 했다. 앞을 향해 걷고 또 걸었다. 한참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곧 쫓아올 것만 같았다.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뛰면 뛸수록 몸은 가벼워 졌다. 마치 구름 위를 뛰는 것처럼 힘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뛰었을 때 저 멀리서 검은 물체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갔다. 검은 물체는 커다란 옷 이었다. 검은 옷은 공중에 매달려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옷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어요?”

사방을 둘러 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겁이 나서 온몸이 떨렸다. 망토처럼 생긴 옷을 입자 비로소 내 몸에 형태가 보였다. 그리고 하얀 세상이 안개처럼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 아이들은 옥상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야 상철이 이 자식 안 올라왔어?”

“기대처럼 어디로 도망간 거 아냐?”

“그 자식도 별거 없구나!”

아이들은 바로 앞에 서있는 나를 보지 못했다. 망토를 입고 겨우 현실로 돌아 왔지만,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겁쟁이! 역시 개 할머니는 돌팔이가 맞아! 하하하 가자! 떡볶이나 먹으러 ”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먹살을 잡히긴 했어도 분명히 왕배 녀석과 싸웠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 없었다. ‘어떻게 된 걸까?’

왕배의 한마디에 아이들은 발길을 돌렸다. 왕배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보였다.

“겁쟁이 겁쟁이 ”

왕배 그림자가 날 겁쟁이라고 놀리고 있었다. 당장 그림자를 짓밟아 버리고 싶었다. 왕배의 그림자는 얼굴을 길게 늘어뜨리며 또다시 비웃었다.

“겁쟁이! 돌팔이 할매 손자는 겁쟁이!”

*

나는 뛰어가 왕배의 그림자를 짓밟았다. 순간 그림자는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왕배가 발걸음을 떼는 순간 내 발도 똑같이 움직였다. 왕배가 옥상 문을 나갈 때 나도 왕배를 따라 나갔다.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왕배의 움직임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왕배의 그림자가 돼버린 것이다.

벗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왕배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여지지 못했다. 또 태양의 방향에 따라 내 몸은 길이가 달라졌다.

“검은 망토!”

원인은 아까 거기에 있던 검은 망토였다. 거긴 어디였으며, 내가 왜 거길 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이 현실을 벗어나야만 했다. 내가 죽기라도 한 것일까? 그렇다면 아이들이 날 못 볼 이유가 없었다. 누워있는 내 모습을 찾았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아무도 못 보게 연기처럼 사라져 그림자가 돼 있었다.

왕배가 도착한곳은 학교 앞 문구점 이었다. 익숙한 곳이다. 왕배와 늘 다녔던 곳이다. 방과 후 아이들이 이곳에 주로 모여 있었다. 학원에 가는 아이 , 게임방을 가는 아이, 과자를 사먹는 아이들이 있었다. 왕배는 문구점 뒷길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왕배는 한 아이를 노려봤다.

키는 작고 안경을 썼다. 눈은 크고 유명 브랜드를 입고 있는 아이 기대였다. 기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왕배에게로 오고 있었다. 옆에 있던 석주가 기대에게 다가갔다. 이어서 왕배의 톨마니들인 지옥, 한술 경민 우영 영석 이도 석주와 함께 갔다. 주위를 둘러보던 왕배도 일어나서 아이들의 뒤를 따랐다.

골목에 다다르자 톨마니 들은 기대를 골목으로 몰아 세웠다.

“미안해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다음에 꼭 가져올게 ”

“주머니 있는 것 다 꺼내!”

기대는 머뭇거렸다.

썩!

기대의 뺨에는 손자국이 새겨졌다. 석주는 기대를 또 한 번 내려치려 했다.

“됐어!”

왕배 말이 끝나자 석주는 올렸던 손을 다시 내렸다.

“우리 패밀리들이 배가 고파서 그래, 그냥 달라는 게 아니잖아! 줘줄게!”

기태는 왕배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하지만 오래 쳐다보진 못했다.

결국 기태는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 두 장과 천 원짜리 세 장을 꺼내 주었다.

그러자 왕배가 기태의 책가방을 벗겼다. 책가방을 거꾸로 들자 가방에서 책과 필통과 함께 동전이 쏟아졌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왕배는 자리에 앉아 동전을 주웠다. 그리고 기태에게 돌려주었다.

“이것 밖에 없는 거지?”

“응 정말이야!”

왕배는 기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믿는다. 나 거짓말 정말 싫어한다.”

“정말이야 믿어줘”

“알았어. 믿어줄게! 내일 3만원 가지고 나와” “어? 뭐라고?”

“두 번 말하게 하지 말자! 내일 보자”

왕배는 톨마니들을 데리고 골목길을 빠져 나왔다. 기태는 왕배가 사라질 때 까지 꼼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 쉬었다. 기태는 우리 반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았다. 나와 왕배도 기태와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가장 허름한 집에 살았다.

기태집이 부자여서 돈을 빼앗는 건 아니다. 기태는 제일 말을 잘 듣는 아이였다. 숙제를 대신 시킬 때도, 게임을 대신 시킬 때도 기태는 그저 왕배가 시키는 대로 했다. 원래 수급은 내 담당 이었다. 우리 패밀리에서 나는 왕배 다음으로 2인자 였다. 오늘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석주가 2인자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기태는 원래 언제나 내게 돈을 바치곤 했다.

왕배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 맞은편에 있는 떡볶이 집으로 갔다. 떡볶이 5인분, 라면 7개, 튀김 5인분 을 시켰다. 주인아주머니는 꼬치를 덩으로 주셨다.

우리 패밀리가 자주 찾았던 곳이다. 왕배가 기분이 좋을 때, 또는 왕배가 기분이 나쁠 때 이곳을 들렀다. 먹성 좋은 아이들은 순식간에 접시들을 비웠다. 오늘도 계산은 왕배가 했다. 왕배는 아이들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비록 대부분 빼앗은 돈 이거나 훔친 돈 이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찻집했다. 하지만 ‘괜찮다’ 는 말로 함께 서로를 속이고 또 속였다.

그 후로 왕배는 빼앗은 돈은 패밀리들을 위해 썼다. 자신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편하게 대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왕배에게 잘 길들여져 갔다.

해가 지자 아이들은 하나둘씩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림자가 된 나는 왕배를 벗어날 수 없었다. 해가 누엣누엣 지고 있었다. 왕배의 발걸음도 우리 동네로 향했다. 왕배와 우리 집은 불과 5분 거리에 있었다. 왕배 집은 언덕 중간에, 우리 집은 언덕 꼭대기에 있다는 점만 달랐다. 동네앞 슈퍼에 멈춰선 왕배는 주변을 살폈다. 바로 왕배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왕배 할아버지는 저곳 슈퍼에서 항상 왕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 술에 취해 있으셨다. 기분 좋은 날은 내게도 용돈을 주셨다. 하지만 그런 일은 매우 드물었다. 대부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왕배 할아버지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왕배를 보곤 ‘빨갱이’ 라며 왕배를 쫓아가 때리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슈퍼에 온 손님들과도 싸우는 날이 많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오늘은 다행히 왕배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왕배는 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빨갱이!”

그때 왕배 할아버지가 뒤에서 나타났다. 왕배는 소르라 치게 놀라며 뒤로 넘어졌다. 왕배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왕배 할아버지도 비틀 비틀 뛰기 시작했다. 왕배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언덕에 위치한 우리 동네 골목은 미로게임 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어디 있냐. 이놈!”

왕배 할아버지는 골목 반대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왕배는 골목 이곳저곳을 뛰어 다녔다. 갈림길이 나오자 왕배는 망설임 없이 파란 대문 쪽으로 뛰어 갔다. 하지만 누군가 왕배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왕배 할아버지 이었다. 왕배는 할아버지를 뒤로 밀쳐 버렸다.

넘어진 왕배 할아버지는 또다시 허공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

“저리가 저리가 난 시키는 대로만 했어! 나는 대한민국 군인일 뿐이야!”

집에 질린 왕배는 그대로 골목을 빠져 나와 뛰기 시작했다.

왕배는 오던 길을 다시 내리달렸다. 그리고 학교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들어갔다. 왕배는 밤늦도록 게임을 했다.

왕배가 PC방을 나온 시간은 11시가 넘어서 였다.

또다시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왕배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왕배는 집에 도착하자 조용히 담벼락으로 집 안을 살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집에서는 큰 소리가 들렸다. 왕배 아빠의 목소리였다. 왕배는 그제야 안도한 듯 가슴을 쓰러 내렸다.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시는 왕배 아빠는 저녁 늦게야 집에 들어오신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싸우는 소리가 오고 갔다. 익숙한 듯 왕배는 작은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왕배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잠이 들었다. 왕배의 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다.

“야 그림자!”

누군가가 외쳤다.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림자!”

“저요? 누…….누구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안을 더듬거려서 방문을 열고 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달빛이 겨우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그래 여기야 여기 ”

거실에 걸려있는 거울 쪽에서 소리가 났다. 가까이 가자 거울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다. 나는 거울 앞으로 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맞아! 난 거울이야! 우리처럼 깨진 거울들은 너 같은 그림자들을 볼 수가 있단다.”

“정말? 내가 보여? 근데 왜 나는 내가 안 보이는거야?”

“넌 아직 왕배의 그림자니까 그림자는 자기모습이 없는 거야 ”

“그럼 너! 내가 왜 그림자가 된지도 알아?”

“응! 너를 너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내가 나를 잃어 버렸다고?”

“맞아! 빨리 네 모습을 찾아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넌 영영 사라지고 말거야 ”

그리고 보니 지금 나는 왕배와 떨어져 있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왕배에게서 자유로워 졌으니까

“너 지금 좋아하고 있구나! 왕배에게서 벗어났다고!”

“어떻게 알아? 내 마음까지 보여?”

“아니 하지만 너 같은 그림자들이 처음엔 다 그러거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었다. 내가 그림자가 된 것도 이상했지만, 깨진 거울이 말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너에 자유는 왕배가 잠든 밤에만 허락된 거야. 다시 태양이 뜨면 넌 다시 왕배의 그림자가 될까라고!”

“설마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널 빨리 찾지 않으면 ”

“널 어디서 찾아? 내체 난 어디 있는 거야? ”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네가 놀던 곳 어딘가에는 있어! 시간이 없어!”

거울의 말대로라면 오늘밤에 널 찾아야 했다. 널 아침이면 또다시 왕배의 그림자가 되고 말 것이다. 밖을 나서려는데 깨진 거울이 나를 붙잡았다.

“잠깐 달빛을 타고 가!”

“달빛?”

“그래 달빛! 너 같은 그림자는 달빛을 타고 다니는 거야.”

정말 이었다. 어느새 달빛이 나를 보듬었다. 내가 경찰서라고 외치자 달빛은 나를 실어 경찰서 앞에 내려 주었다.

경찰서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보였다. 할머니는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계셨다.

경찰 아저씨 책상 앞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주사와 링거가 놓여 있었다.

경찰 아저씨는 할머니를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 증거가 다 있잖아요!”

“잘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할머니도 1980년에 기독교 병원 간호사 이었잖아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

“지금 간호사가 아닌 분이 병원 밖에서 주민들에게 주사 놓으면 불법이에요.”

“죄송합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차라리 내가 할머니 대신 감옥에 간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목소리는 고사하고 내 모습도 경찰 아저씨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 나는 빨리 어딘가에 숨어있는 나 자신을 찾아야만 했다. 내가 숨어 있을만한 곳을 생각했다. 순간 할머니 시골집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원래 시골에 사셨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농사를 못 짓게 되자 3년 전에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신 것이다. 할머니 시골집은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다. 내가 숨는다면 그곳에 숨었을 것이다. 할머니랑 제일 많이 했던 놀이가 숨바꼭질 이었다. 술래가 된 할머니가 나를 찾을 수 없도록 꼭꼭 숨었던 기억이 생각났다. 시골에 사실 때 할머니 냄새가 그리웠다. 손수 삶아주시던 고구마도 그리웠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는 할머니의 시골집을 자주 갔었다.

“할머니 내년에도 또 올게!”

라고 할머니랑 약속을 했었다. 할머니와 함께 심었던 고구마도 이번에 가서 캐기로 약속했었다. 고구마 밭은 정말 신기했다. 고구마 몇 개를 심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십 개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전에 한번은 잃어버린 장화 한 짝을 고구마 밭에 묻어 둔적도 있었다. 잃어버린 장화 한 짝을 찾기 위해서다. 그걸 고구마 밭에 묻어두면 얼마 후에 두 짝이 돼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머지 한 짝마저 묻어 둔 곳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하지만 다음에 가면 꼭 찾기로 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그림자가 돼서 좋은 점이 딱하나 있었다. 나는 다시 달님을 올려다봤다.

달님은 환하게 웃으며 달빛을 비춰주었다. 달님은 또다시 나를 달빛에 실어 시골 할머니 집으로 나를 옮겨 줬다.

할머니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주위는 캄캄했다. 달빛이 아니었으면 할머니 집마저 찾지 못했을지 모른다. 썩 하는 바람소리가 을씨년스럽게 들렸다. 괜히 왔나 싶었다. 사람이 살지 않은 할머니 집은 무섭게 변해 있었다. 주인은 없고 온통 어둠 움의 그림자뿐이었다.

“어? 상철이네.”

난 순간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새까만 공간에서 누군가 날 불렀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보! 누가 널 볼 수 있겠니?”

순간 나는 마루에 걸려 있는 거울을 보았다.

내가 할머니 집에서 매일 봤던 그 거울이었다. 깨진 부분을 노란 테이프로 붙인 거울이었다.

“널 잃어 버렸구나! 여기서 잃어버린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 내가 가장 많이 숨었으니까.”

“먼저 어디서 잃어 버렸는지가 중요해! 잘 생각해봐!”

나는 서둘러 나를 찾기 시작했다. 먼저 장독 뒤를 살폈다. 하지만 깨진 장독이 있을 뿐 나는 없었다. 이번에는 소.

외양간 2층은 내가 잘 이용하던 장소였다. 외양간에 소는 없었지만 소똥냄새는 조금 났다. 하지만 이곳에도 나는 없었다. 창고와, 화장실, 부엌에도 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방 안에 있는 다락방이 생각났다. 할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 안에서는 더 이상 할머니 냄새가 나지 않았다. 방바닥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때는 뽀뽀 언 내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온돌이었다. 다락으로 연결된 계단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계단에 오르자 ‘빠거덕’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락 안을 살펴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실망한 표정으로 내려오자 달빛이 방안 벽을 비춰 주었다. 그러자 내가 했던 낙서가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물고기, 토끼 그림이 있었다. 조금 옆에는 할머니, 아빠, 엄마 얼굴도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네모난 상자 그림이 보였다. 순간 생각이 떠올랐다. 할머니의 상자! 장롱 속에 숨어 있던 할머니의 상자를 할머니 몰래 숨겨놔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그 옆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가자 장판이 나왔다. 장판을 들켰다. 종이 한 장이 보였다. 종이에 ‘보물지도’ 라는 표시와 함께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저번에 잃어버린 장화처럼 이번에도 할머니 상자를 숨겨놓은 장소를 잊어먹지 않기 위한 방법 이었다. 물기가 약간 번져있긴 했지만 지도표시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서둘러 문을 닫고 방문을 나왔다. 이제 하나씩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것 같았다. 마루 아래를 봤다. 농사에 쓰이는 도구들이 있었다. 나는 호미를 집어 들었다. 고구마를 캐 때 할머니가 내게 쥐어 주시던 것이다. 달님은 넓은 마당을 비춰 주었다. 지도를 따라 마당을 지나자 곧장 고구마 밭에 이르렀다. 고구마 밭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탓이다. 풀을 헤치자 길게 뻗은 고구마 줄기가 나타났다. 지도를 따라 끝에서부터 다섯 번째 두덩으로 갔다. 거기서 곧장 직진을 했다. 고구마 밭 끝 부분이었다. 큰 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전에 내가 표시해 놓은 듯 했다. 돌을 옮기고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굵게 자란 고구마가 나왔다. 또 나왔다. 고구마는 줄기를 따라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 조금 더 깊게 파 헤치자 호미 끝에 뭔가에 걸렸다.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공책 크기만 한 상자 두개가 보였다.

하나는 노랑색 또 다른 하나는 파랑색 상자였다.

‘ 과연 이 상자에 할머니는 뭘 보관하고 계셨을까?’

노란색 바탕의 상자는 녹이 많이 슬어 있었다. 약 상자인 듯 했다. 상자 뚜껑은 잘 열리지 않았다. 녹이 많이 슬어서 아예 붙어 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오늘밤 나를 찾지 못하면 나는 영영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뚜껑을 잡아 당겼다. 그러자 뚜껑이 열리면서 둥그런 천 조각이 푹 하고 튀어나왔다.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다. 천은 돌돌 말려 있었다.

천천히 풀어보자 천의 정체가 드러났다. 봉대였다. 상자를 뒤집어 봤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상자 아래쪽에는 1980년 5월 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 이판걸 왜 넣어 놨을까?”

두 번째 파란색 상자를 집어 들었다. 상자는 새것처럼 광이 나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물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상자는 멀쩡했다.

걸이 깨끗한 걸로 봐서 이번에는 뭔가 좋은 것이 들어 있을 것 같았다. 상자 뚜껑을 잡아 당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아무리 돌려봐도 녹슨 곳 은 없었다. 이번에는 두 발로 상자를 밀면서 힘껏 상자 뚜껑을 열었다.

순간 상자에서는 환한 빛이 펼쳐졌다. 눈이 멀 만큼 환한 빛이었다. 세상이 온통 하얀 색으로 변했다. 희뿌연 안개같은것이 가득했다.

잠시 후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다시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 옥상이었다. 누군가 내 멍살을 잡고 있었다. 왕배였다. 목이 조여진 상태였다.

나와 눈이 마주친 왕배는 깜짝 놀라 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주변의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나와 왕배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 어떻게 된 일일까?’ 목이 아팠다. 어깨도 아파왔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나는 내 손과 발을 봤다. 보였다. 나는 옥상을 뛰어 다니며 야호를 외쳤다. 아이들은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봤다.

옆에 있던 여자아이의 거울을 빼앗아 내 얼굴을 봤다.

거울 속 에는 활짝 웃고 있는 내가 있었다. 눈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입가에는 피가 세어 나왔다. 하지만 입가에는

피가 세어 나왔다. 하지만 입가에는 웃음도 함께 세어 나왔다. 이상한 건 내 손에 할머니의 붓대가 들려져 있었다는 거다.

“잠깐 기절하더니 미친 거야!”

왕배는 넘어져 있는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넌 나한테 안 돼! 까불지 마! 네 할머니는 돌팔이가 맞아!”

왕배는 여전히 내게 명령을 했다. 또다시 나를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그림자로 만들 참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림자로 살아가기 싫었다.

“우리 할머니는 돌팔이가 아냐!”

왕배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또 다시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왼손으로 왕배 팔을 막았다. 왕배는 콧방귀를 끼더니 오른발로 내 배를 찼다. 나는 또다시 넘어졌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 왕배를 향해 높이차기를 했다. 왕배가 뒤로 넘어졌다.

이번엔 왕배가 놀랐다. 왕배의 눈이 커졌다.

“네가 진짜 미쳤나 보구나!”

순간 왕배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오는 듯 했다. 왕배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내게 달려들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왕배의 주먹과 발이 내 얼굴과 가슴 배를 수십 번 연속해서 가격했다. 너무 정신없이 맞아서 몇 번을 맞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흥분한 왕배를 아이들이 겨우 말렸다. 코에서 뭔가가 주르륵 흘러 내렸다. 코피였다. 그제야 왕배는 한발 뒤로 물러났다. 왕배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맞아서 아프고 억울한 건 난데 오히려 왕배가 분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이들이 왕배를 말리지 않았다면 내 몸 또 다른 어딘가에서 피가 났을 것이다. 눈도 지금보다 더 많이 부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왕배의 얼굴도 많이 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싸움은 밤늦도록 이어졌을 것이다. 왜냐면 할머니를 돌팔이로 만들 순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 왕배의 그림자 노릇이 싫었기 때문이다.

“야 됐어! 알아들었을 거야! 빨리 기태 녀석에게 가자!”

옆에 있던 영석이가 왕배를 이끌었다. 영석이는 패밀리 중에서 나랑 제일 친했던 친구다. 나와 왕배를 떼어 놓기 위한 생각인 듯 했다. 기태 집은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다. 그랬다. 지금은 기태를 만나기 이전 상황이었다. 기태는 우리들에게 저금통과 같은 아이였다. 왕배가 옥상을 내려가자 지옥, 한술, 경민, 석주, 우영, 영석 이가 차례로 따라 내려갔다. 하지만 왕배를 이대로 보낼 순 없었다. 녀석에게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한다.

“할머니 욕한 거 사과해!”

왕배가 돌아봤다. 하지만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시 왕배를 돌려 세웠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며 나는 또다시 사과를 요구했다. 왕배는 그 후로도 몇 번을 몸을 돌이켜 날 노려봤다. 하지만 귀찮은 듯 아이들과 학교교문을 빠져 나갔다. 교문 앞 신호등은 파란색이 깜박 거리고 있었다.

5.4.3.2.1 빨간색으로 바뀌기전 아이들은 서둘러 신호등을 건넜다.

간발의 차이로 건너지 못한 나를 아이들이 쳐다봤다. 그리고 검지를 들어서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도로를 사이에 놓고 아이들과 나는 멀어져 갔다.

손에 들려진 할머니의 붓대가 바람에 실려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혼자다 됐다. 학교생활이 힘들어 질것이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본적이 있다. 무리에서 떨어진 얼룩말은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

차들이 지나가고 신호등은 또다시 파란불이 들어왔다. 신호등을 건너 맞은편에 왔지만 아이들은 없었다. 문구점에 이르자 아이들로 북적였다. 우리 반 아이들도 몇몇 보였다. 하지만 내게 아는 척하는 아이는 없었다. 내가 괴롭혔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다. 혼자서 다니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눈치였다. 그중 어떤 아이는 나를 노려보는 아이도 있었다. 왕배와 다닐 때는 상상조차 못하던 모습이다. 동물에 왕국에선 사자들도 무리지어 다녔다. 혼자 다니는 사자는 공격당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긴장이 됐다. 나는 지금 혼자서 상처 입은 채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구점을 빠져 나와 어느새 우리 동네에 이르렀다. 동네 슈퍼 앞 골목에서 왕배와 패밀리 들을

다시 만났다. 기태를 기다리는 듯 했다. 항상 이곳에서 우리는 기태에게 돈을 빼앗았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슈퍼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슈퍼 앞에서 싸움이 난 것이다.

왕배 할아버지 였다.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왕배 할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대낮부터 술을 드신 것이다. 고주망태가 된 왕배 할아버지는 슈퍼 아주머니와 싸우고 계셨다.

“술을 드셨으면 돈을 내셔야지요! 왜 도둑 술을 드세요!”

“도둑! 도둑이라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사람들!”

“어디서 나라를 들먹거려! 광주사람을 때려잡은 진압군 주제에!”

옆에서 술을 드시던 동장 할아버지가 외쳤다. 동장 할아버지 외침에 지나가던 주변사람들도 하나둘씩 왕배 할아버지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순간 왕배 할아버지의 눈이 무섭게 변했다. 눈빛이 변한 건 왕배도 마찬 가지였다. 왕배는 얼굴까지 빨갛게 변했다. 왕배가 부끄러울 때 나타나는 얼굴반응이다.

‘진압군’이라는 말을 듣던 순간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5.18날 진압군들이 광주 사람을 사정없이 패고, 짓밟고, 총으로 쏘다니까 ”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패고, 총으로 쏘도 경찰이 잡아가지 못했던 그날

진압군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궁금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사람을 보았다. 비틀비틀 위태롭게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1980년 이면 우리 아빠가 꼭 지금 내 나이였을 때이다. 시간이 흘러서 내가 또다시 아빠와 같은 나이가 되면 그때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을까?

왕배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횡설수설 했다. 참다못한 동장 할아버지가 왕배 할아버지를 밀쳐 버렸다. 왕배 할아버지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더 때려라 더! 화가 풀리도록 더 때려라 더!”

바닥에 쓰러져서도 왕배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횡설수설 했다.

“미친 영감!”

동장 할아버지는 한바탕 욕을 하고 자리를 떠나셨다. 그러자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다. 왕배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슬퍼 보였다.

이상한 웃음을 웃고 있는 할아버지는 그래서 더 아파 보였다.

왕배는 고개를 돌려 버렸다. 아이들은 멀뚱멀뚱 먼 산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왕배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할머니 봉대를 왕배 할아버지 머리에 천천히 감싸 주었다.

“할아버지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곧 나아지실 거예요 ”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다. 나도 두 손으로 왕배 할아버지 손을 잡아 드렸다.

할머니가 평생 했던 일은 나는 난생 처음 해 보았다. 가슴이 뜨거웠다.

할머니가 ‘돌팔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평생 동안 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

할머니 말이 또 한 번 생각났다.

“돌이켜 보면 그날 광주에 있었던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픈 사람들 이었제 ”

할머니는 지금 쯔 경찰서에서 풀려 나셨을까? 경찰서를 가려고 일어났다.

멀리서 기태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다. 난 기태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날 본 기태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기태가 그걸 믿을지 의문 이었다. 기태는 차가 달리는 도로를 거침없이 횡단했다. 버스 아저씨는 경적을 울리며 차를 세웠다. 그걸 보던 왕배와 아이들도 일제히 우리를 쫓아왔다. 왕배가 뛰자 왕배를 발견한 왕배 할아버지도 일어나 우리 쪽으로 뛰어왔다. 기태는 아파트로 들어갔다. 따라 들어갔다.

기태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기태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다.

나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내 뒤를 이어 왕배와 패밀리들도 뛰기 올라왔다.

꼭대기에 도착하자 기태는 아파트 옥상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다행히 옥상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자 기태는 통로에 있는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창문에 올라서 걸터앉았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뛰어 내릴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려와”

“너 같은 자식들 말은 더 이상 안 들어 저리 꺼져버려!”

그때 왕배와 패밀리가 올라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왕배 할아버지가 내렸다.

“아…….도…….돈 돌려줄게…….내려와!”

왕배 말을 듣던 할아버지가 왕배를 노려봤다.

“돈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네놈들 때문에 얼마나 학교가기가 싫었는지 알아!”

“아가 언능 내려와! 못써! 할아버지랑 얘기하자 너 그라문 느그 엄마 못살아야!”

기태는 코끝이 빨개졌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이었다. 기태 몸이 창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넘어지고 있었다.

나는 얼른 뛰어가 기태 왼쪽 다리를 잡았다. 기태는 겁을 잔뜩 먹고 비명을 질렀다.

겁을 먹은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너무 힘이 들었다. 그때 왕배가 달려와 기태의 오른쪽 다리를 잡았다.

그러자 왕배 할아버지도 왕배를 붙들고 힘을 보탰다.

패밀리들도 일제히 달려들어 기태를 붙잡았다. 기태는 무사히 아파트 통로로 구출 됐다. 왕배 할아버지는 기태의 땀과 눈물을 닦아 주었다. 그리고 기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가! 이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 때문이어야 우리 왕배가 너한테 그란 것은 싹 나 때문이어야 미안하다 참말로 미안하다.”

왕배 할아버지는 붉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왕배가 벽을 보고 돌아섰다.

그에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